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S the 1 요리학원
여름大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 스시(초밥) 반 수강생모집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384-1984

제1780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7월 17일 (음력 6월 4일) 화요일

광주 뜨거워지고 있다

6월 기온 평년보다 0.9도 상승…열대야도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광주지역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22.9도로 평년(1971~2000년) 평균 기온인 22.0도보다 0.9도 올랐다.

최고기온(일 최고기온의 평균값)은 27.6도를 기록해 평년값인 27.2도보다 0.4도 높았다. 최저기온(일 최저기온의 평균값)은 19.2도로 평년값 17.8도보다 1.4도나 높아졌다.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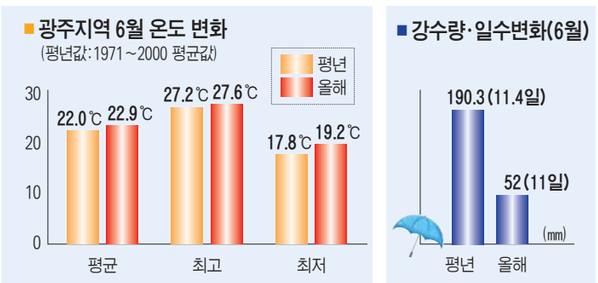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비 내리는 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6월 광주의 강수일수는 11일로 평년값 11.4일보다 0.4일 적어졌다. 강수량은 52㎜로 평년 190.3㎜의 27.8%에 불과했다.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 넘는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5.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7월 13일)보다 보름가량 이른 것이다.

최근 10년간 열대야 연간 발생 일수도 평년에 비해 1.3일 증가하고 있다. 남부지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7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 진기범 청장은 "최저기온이 최고기온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온난화 현상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해·건물 밀집도·인구 밀도가 높아져 낮에 달궈졌던 열이 밤에도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침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열대야도 증가해 찜통 더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달 말 장마 끝…찜통더위 본격 시작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상순(1~10일)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내달 상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1~2000년 8월 상순의 지역별 평균기온은 광주 26.9도를 비롯, 서울 26.1도, 강릉 25.7도, 부산 26.2도, 제주 26.7도 등이었다. 광주지역의 평균 최고기온은 31.4도로 대구 32.1도, 전주 31.7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장마가 점차 소멸되는 7월 하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하순의 1971~2000년 평균 최저기온은 광주 23.4도를 비롯, 서울 23.2도, 대구·전주 23.3도, 부산 23.7도 등으로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이 열대야 발생 판정 기준인 25도에 육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림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민주 대통합파+우리 탈당·통합파+시민사회세력+손학규

범여 '제3지대 신당' 급물살

4개 정파 "내달 5일 창당"

범여권 대통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은 최소한 60석 규모의 원내 2당으로 출범하는 데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이 속속 합류할 전망이어서 올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통합민주당 대통합파는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위' 참여를 선언했다.

이는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제3지대 신당 창당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 43명으로 구성된 '대통합추진모임'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내달 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통합 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께 정치권과 공동 창준위를 구성하고 내달 5일 창당대회를 갖는다고 밝혀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및 대통합 추진 모임 등과 흐름을 같이 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홍재형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이 이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안민석, 김재윤, 이상경 의원 등이 제3지대 신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는 등 오는 18일께 탈당 결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은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 손학규 전 지사 측 선진평화연대, 열린우리당 추가 탈당 의원들이 먼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 뒤 열린우리당 및 통합민주당이 나중에 합류하는 '단계적 대통합'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은 대통합추진모임 43명,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4명, 우리당 추가 탈당파 15명 정도를 합쳐 60석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합류가 예상되고 있어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의 규모는 80~90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임동욱기자 tuim@

통합민주당 내 대통합파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균환 전 의원, 김영진 광주시당 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효석·이낙연·채일병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는 중국 출장으로 인해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韓美 "北 비핵화 수준 맞춰 테러국 해제"

IAEA 사무총장 "北 영변 핵시설 폐쇄 확인"

한·미 양국은 차기 북핵 6자회담 전략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정치·안보적 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 체류 중인 감시검증단이 영변 원자로 폐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방한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 등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한 수준 만큼 정치·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군부인사가 제기한 '북·미 군사회담'에 언급, "그런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도 성명에 있으며 군인 한 명이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천 본부장은 "만일 북한이 다른 얘기를 6자회담에 한다면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논의를 위한 북·미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평화체제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16일 "우리 감시검증단이 그곳에 있으며 그들이 어제(영변 원자로의) 폐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